

반다이산 지질공원 : 일본 지질공원 네트워크

일본 지질공원 네트워크(JGN)에는 약 50 곳의 지질공원이 가입했으며, 그중 10 곳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해당 네트워크는 전문 지질학자와 지질 연구에 종사하는 민간 조직의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듬해 처음으로 여러 지질공원이 지정되었고 2009년에 해당 네트워크는 NPO 단체가 되었습니다. 반다이산 지질공원은 2011년에 JGN 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지질공원과 마찬가지로 반다이산 지질공원도 4년에 한 번 재인증을 받습니다.

JGN 은 일본의 지질공원의 감시 및 인증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 행사를 개최하거나 자연재해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일본 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조직은 모두 주민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을 위한 미래를 서로 협력하여 구축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해당 방침은 '교육, 보전,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가치관에 따른 것입니다.